
자장면~짜장면, 만날~맨날:
복수 표준어를 확대한 사정
- 남기심 전 국어심의회 위원장을 찾아서 -



답변자: 남기심(전 국어심의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

질문자: 차익종(서울대학교 강사)

때: 2011. 11. 8. 오후 2시

장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안 연구실

국어 능력 측정 시험에 단골로 나올 법한 문제들이 있다.

〈다음 중 표준어 규정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먹을거리~먹거리

만날~맨날

허섭스레기~허접쓰레기

복사빠~복숭아빠

괴발개발~개발새발

손자~손주

사전 찾는 버릇이 몸에 밴 사람이 아니면 한두 개 이상 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들도 2011년 8월 31일부터는 고민을 한결 덜게 되었다. 모두 표준어로 허용된 덕택이다(이전까지는 ‘먹을거리’, ‘만날’, ‘허섭스레기’, ‘복사빠’, ‘괴발개발’, ‘손자’ 등이 표준어였다). 바로 그날 국립국어원이 국어심의회(위원장 남기심)에서 통과된 위의 예들을 비롯한 39개 항목을 복수 표준어로 확대 인정하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복수 표준어를 선정한 뜻을 찾아서

이전 표준어와 뜻이 같지만 다른 어형을 인정한 것 11개(간질이다~간지럽히다, 남우세스럽다~남사스럽다, 목물~등물, 복사빠~복숭아빠, 뫏자리~뫏자리 등), 현재의 표준어와 의미에 차이가 있고 쓰임이 다른 것 25개(‘-기에’의 구어적 표현인 ‘-길래’, ‘뜰’보다 추상적인 공간을 뜻하는 ‘뜨락’, 손자와 손녀를 모두 뜻하는 ‘손주’ 등), 그리고 의미와 말소리가 같으면서도 복수 표기를 인정한 것 3개(짜장면, 품새, 택견)들이 그것이다.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짜장면’도 이제는 규정에 부합한 표기로 ‘자장면’과 함께 어엿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

원 인터넷 누리집에서 ‘알림 마당’, ‘국어원 소식’ 중 8월 31일 자 게시물을 보면 된다. 국어원에서 한글 문서를 첨부해 놓았다. 물론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도 심의 결과대로 고쳤다).

이 결과가 알려지자 주요 신문 방송마다 화젯거리로 보도했다. 어떤 직장인은 그날 점심을 ‘짜장면’으로 먹었다는 이야기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물론 신문 교열을 담당하는 분들 중에는 국어심의회가 어문 규정을 너무 허투루 허물고 있다고 비판한 이도 있었다.

적지 않은 뒷이야기를 낳은 이번 결과에 대해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그 주역이라 알려진 남기심 전 국어심의회 위원장(연세대 명예 교수)을 찾았다. 연세대학교 교정을 웅단처럼 덮은 은행잎을 밟으며 한참 들어가니 위당관이 나왔다. 그 건물 5층에 있는 연구실(이라기보다는 책상 하나로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사전학을 전공한 젊은 연구자들에게 둘러싸여 차를 끓이고 있는 남 전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 남 전 위원장은 현 국립국어원의 전신인 국립국어연구원의 원장을 지낼 때부터 언어 현실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지켰던 분답게 이번 복수 표준어 확대 과정은 물론 국어 정책이 나아갈 방향까지, 명쾌하게 때로는 쓴소리까지 아끼지 않고 답변해 주었다.

복수 표준어 확대는 언중의 소통을 위한 것일 뿐

차익종: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복수 표준어 확대 심의 결과가 큰 화제가 되었는데, 선생님께서도 여러 이야기를 들으셨겠습니다.

남기심: “잘되었다.”, “잘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요.

차익종: 그러셨겠습니다. 하루 종일 언론과 지인들한테서 문의 전화를 받느라 바빴다는 국어학자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간지에서는 비판적인 글을 싣기도 했답니다. ‘범’처럼 여기던 어문 규정을 그렇게 쉽게 풀면 앞으로 얼마나 더 바뀌게 될 것이냐며 근심을 털어놓더군요.

(실제로 '口 경제 신문'에 실렸던 편집국 교열 담당 기자의 시평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곳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진지해졌다.)

남기심: 표준어를 왜 정하는지, 언어 정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표준어를 처음 정한 것이 언제인지 아시지요?

차익종: 1933년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당시 조선어학회에 서는 '마춤법'이라 표기하여 발표하였다.)'을 정하고 그에 따라 1936년에 표준어를 정해 발표했지요.

남기심: 네, 본래 1920년대부터 민족 고유어를 살려야겠다는 취지에서 사전 편찬 운동이 일어났는데, 조선어 학회가 그 실행을 맡았지요. 그런데 사전을 펴내는 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같은 뜻을 가지는 비슷한 변이형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똑바로'도 있고 '똑바루'도 있는가 하면, '옥수수'도 있고 '강냉이'도 있단 말이지요. 그만큼 방언이 많았죠. 서울에서도 마포 말, 왕십리 말, 밤섬골 말이 달랐을 정도입니다. 제가 1960년대에 대구 계명대학교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계명대 인근 반촌(양반 마을)과 민촌(상민 마을)의 말이 달랐으니 일제 강점기 때에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렇게 방언 차이가 컸을 때 언중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표준어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선어 학회에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차익종: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표준어 규정을 덧붙이거나 고친 것은 1989년에야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졌을까요?

남기심: 변하는 것이 말의 본래 모습이니, 시간이 지나면 현실과 맞지 않게 되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표준어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 어형을 버리고 새로운 어형을 표준어로 바꾸면, 바로 그 날부터 지금까지 표준어 대접을 받는 말이 모두 비표준어가 되어 버리니까요. 그때까지 표준어대로 말해 온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비표준어를 쓰고 있는 현실이 생기는 것이지요.

차익종: 일종의 모순이군요.

남기심: 그러다 보니 표준어 규정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데 그만큼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복수 표준어를 지정하자는 방안이 바로 그래서 나온 것이지요.

그렇지만 당시에 복수 표준어를 지정했을 때에는 너무 떠들썩하게 알려 하지는 않았지요. 하나하나의 표준어 지정 결과만 잘 알리되, ‘복수 표준어’를 정한다는 식으로는 보이지 않으려 했지요.

차익종: 특별히 그러신 까닭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남 전 위원장은 빙그레 웃기만 한다.)

아무튼 이번의 경우에도 반론이 없지 않았는데요.

남기심: (여전히 빙그레) 저는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지요.

차익종: 그러고 보니 예전에 두음 법칙을 성씨 표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결정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선생님께서 원장을 지내실 때 일입니다.

남기심: 그랬지요. ‘류’씨라고 표기해 온 성씨들에게 ‘유’씨라고 표기하라고 강요할 수 없으니까요. ‘류’로 쓰고 [유]라고 발음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성씨의 표기를 어문 규정이 다룬다는 것도 영역을 넘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성씨가 그렇게 표기하겠다는데 국가가 왜 간섭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익종: 결국 규정보다는 사용 현실이 중요할 수 있다는 취지이겠군요. 새로운 세대와 이전 세대의 사용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그 말을 사용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것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것 등으로 이번 복수 표준어 심의 취지를 이해하면 될까요?

남기심: 그렇지요. 가령 ‘태견’, ‘택견’ 같은 경우는 본래 ‘태견’만 인정했는데, 이 무예를 실제로 수련하고 보급하는 단체에서는 ‘택견’만 써 왔단 말이에요.

차익종: 심의회 위원 중 한 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 ‘택견’이란 표기가 있더라. 역사적 근거도 있음으로 해서 이것도 인정했

다.”라고 말씀하셨더군요.

남기심: 그랬지요. 국어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으면 더 좋을 테니까.

개발새발, 짜장면

차익종: 이번 심의 결과에 관해서 계속 더 살펴볼까요. 이번 복수 표준어 규정은 정말 어문 규정 시험 문제의 단골 문항을 골라 놓은 것 같습니다. ‘두루뭉술하다~두루뭉실하다’, ‘야멸치다~야멸차다’, ‘오순도순~오순도손’, ‘연방~연신’, ‘끼적거리다~끄적거리다’, ‘어수룩하다~어리숙하다’, ‘괴발개발~개발새발’, ‘냄새~내음’……. 이 경우는 의미가 조금씩 변했다고 인정해서 받아들여 준 것들이군요.

남기심: 그렇지요.

차익종: 그런데 ‘괴발개발~개발새발’은 본래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처럼 아무렇게나 글씨를 써 놓은 모양’을 뜻한 ‘괴발개발’을 ‘개의 발, 새의 발’로 잘못 이해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원을 잘못 분석한 경우까지 인정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불만도 있을 텐데요.

남기심: 그렇게 엄격히 분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 전해지거나 잘못 분석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현실의 언어생활과는 아주 멀어지는 법이지요. 한자도 그래요 우리가 배우는 기초적인 한자도 옛날 형태나 발음과 크게 달라진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원래와 달라졌다고 시비 거는 이는 없잖아요.

차익종: 그렇지요, 속자나 속음도 받아들여 쓰는 경우가 많지요.

남기심: 이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항상 드는 예인데, ‘엿질러 절 받기’라는 속담이 있지요? ‘엿드려 절 받기’라는 속담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엿질러 절 받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것도 점점 굳어지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인터뷰를 끝내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실제로 ‘엿질러 절 받

기로 쓴 소설도 있었다). ‘괴발개발’ 대신 ‘개발새발’이 되면, 어원적 의미는 다르지만 속담으로서의 의미는 거의 같게 되겠지요.

실제 언어 현실을 고려해야

차익종: 언중의 오분석도 언어 현실이 될 때에는 대접해 주어야 한다는 말 씀이군요. 그래도 여전히 비판적인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짐짓 더 앞장서 볼까요? 이리다가 다음번에는 ‘예쁘다~이쁘다’, ‘김치찌개~김치찌개’, ‘소주~씨주’도 복수 표준어로 허용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 표준어가 다 무슨 소용이냐, 등등 말이지요. 정말 ‘이쁘다’는 왜 인정하지 않으셨나요? 구어에서는 요즘 거의 ‘이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남기심: 심의회 안건으로 안 올라왔으니까 그랬지요(웃음). 실제로 국어심 의회의 안건은 국어원에서 마련하고 있어요. 어떤 제안이나 건의가 나오 면 국어원에서 꽤 오래 조사를 해서 근거를 갖춘 후 심의회에 올리게 되 는 것이지요. 심의회는 그 안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어원 에서 조금 늦은 것이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도 많은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표준어 규정이 변하면 출판물에 우선 큰 영향을 줍니다. 책은 물론 신문, 잡지까 지. 그리고 방송, 간판, 공문서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겠지요.

차익종: ‘짜장면’ 이야기를 잠시라도 안 할 수 없겠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정하지 않으셨나요? 이것도 안건 상정이 지금 되어서 그랬나요?(웃음)

남기심: ‘짜장면’ 문제는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이 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원어 그대로 적자면 우리말 표기에서 된소리를 적지 않게 쓰게 됩니 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된소리가 맞는 비중, 그러니까 기능 부담량이 적 잦아요? 외래어 표기에서 된소리 표기를 허용하게 되면 중국어는 물론 프 랑스어나 스페인어, 러시아어에서 온 외래어가 국어의 특성과 달라지는 결

과가 나옵니다. 국어의 특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말의 음운 구조에 맞춰 적으려다 보니 ‘자장면’이 된 것이겠지요.

차익종: 외래어로 볼 경우 우리말 소리의 특성을 고려해서 된소리 표기를 기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남기심: 그래서 이번에는 ‘짜장면’을 외래어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허용하게 되었지요.

차익종: 본래 ‘자장’이던 외국어가 우리말로 되면서 ‘짜장’으로 변했다고 인정하지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셨군요. 외래어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로 돌파구를 찾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사실 ‘외래어’ 자체가 한국어의 일부로 자리 잡은 말 아닌가요? 외래어라고 했을 때에는 본래의 의미나 형태, 소리와 떨어진 것인데, 외래어를 원음대로 표기할 것이냐는 논란을 빚고 있던 말입니다. 외래어와 외국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인가요?

국어 정책의 반성

남기심: 과연 외래어란 무엇인가요? 외래어와 고유어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구나 말소리의 표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아주 쓴소리를 해야겠는데, 우리 국어학계의 현실이 말입니다. 국어 정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차익종: ‘없다’기보다는 ‘적다’는 지적이시겠지요?

남기심: 없어요. 《국어 정책론》을 펴낸 분도 있었지만 국어학사에 가까웠지, 정말로 언어 정책을 주로 연구해 온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모두 순수 언어학 분야에만 매달리고 있고, 응용 분야 연구자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국어의 현상을 보는 눈이 좁게 됩니다. ‘외래어란 무엇이냐’라는 정의라도 진작 해 봤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지요. 사실 외래어 표기에 된소리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거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차익종: 왜 그런가요?

남기심: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외국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외래어 표기 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어·프랑스어·독일어 이외의 표기는 《웹스터 사전》의 발음을 참조한다.” 게다가 앞의 세 언어 이외의 발음을 알려면 그 나라 관련 전공자들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이분들이 그 언어의 언어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정치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경우가 많았던 말이지요. 언어학은 물론 조음 음성학도 이해가 안 된 경우가 많아서 곤란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어, 말레이어, 타이어……. 이런 언어들을 그대로 접하게 되면서 외래어 표기 문제가 예전과 달라졌어요.

차익종: 이주민들도 많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런 언어들의 발음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지요. 물론 언어 전공자도 늘어난 편이고요.

정확하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로, 국어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해

차익종: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 현실을 중요시하자면 결국 어문 규정이 가지는 힘이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남기심: 어문 규정이 언어 정책의 전부가 아니지요.

차익종: 발상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남기심: 어문 규정은 언어 정책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표준어’라는 것 자체가 과연 될 만한 것인지 의문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어’로 개념을 바꾸자는 주장도 나오는 형편이지요.

차익종: 예전에 국립국어연구원장으로 계실 때, “국가가 국민을 계몽하는 국어 정책을 가르치는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말도 어법에 맞지 않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터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

다. 국가나 국어학자가 규범의 감독자가 될 수는 없다는 인식인데요.
남기심: 그렇지요. 그래서 당시 ‘가나다 전화’에서도 ‘어떤 표현이 맞다’는 식으로 안내하지는 말라고 당부했었지요.

차익종: 그렇다면 규범 이외의 다른 영역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남기심: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양 있는 말, 품위 있는 말’입니다. 표준어나 맞춤법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논문에서 ‘is not’ 대신 ‘isn’t’를 썼더니 지도 교수께서 빨간 펜으로 그 으며 이러십니다. “젤리그 해리스(Zellig Harris)처럼 유명한 교수라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표현에 대한 판단은 문법이나 규정으로는 알 수가 없지요.

또 휴가철에 기숙사가 문을 닫아 일반 시민의 집에서 며칠 잔 일이 있었는데, 그 집 주방에 손때 묻은 대형 《웹스터사전》이 항상 거꾸로 꽂혀 있더군요. 그 집 가정주부가 편지 쓰기를 좋아했는데, 수시로 꺼내서 본다는 것이지요. 캐나다에 여행을 간 적도 있었는데 아름답기로 유명한 빙하 호수 주변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누가 쓴 것인지 모르지만,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로 돌아가다’라는 제목 아래 호수를 소개하는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아름다웠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 주겠어요? 그들의 일상 언어 생활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차익종: 사전을 이용하는 문화나 관광지 안내판의 내용을 거론하자면 우리가 되돌아볼 점이 많겠군요.

남기심: 그렇습니다. 가령 산간 도로를 지나다보면 ‘낙석 주의’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돌이 떨어질지 모르니 빨리 지나가라는 것인가요, 돌이 떨어져 있으니 천천히 조심해서 지나가라는 것인가요? 지하철 안내 방송에서 ‘안전선 밖에 있어라’고 하는데, 뒤로 물러서라는 것인지 앞으로 나오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 안에서 방송하니까 자기 위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렇겠지요. 명석하지 못한 사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언어생활 때문이지요.

앞으로는 국어 능력은 맞춤법, 표준어 점수가 아니라, 품위 있고 아름다운 말, 정확하고 명석한 사고, 어휘량, 독서 이해력, 표현력으로 평가해야겠어요. 이런 능력은 경제력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언어 능력이 더 좋은 노동자들이 더 높은 노동의 질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물론 우리의 언어생활이 나아지려면 우선 존경받는 문필가, 학자, 교양 있는 정치인이 많아져야 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가장 우수한 학자들이 영문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일일이 간섭할 필요도 없지요.

“이제 말 좀 잘해 보자”

차익종: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국어 정책에서 말을 일이 오히려 더 많아지겠습니다.

남기심: 그렇지요. 지금까지의 국어 정책이 어문 규정과 표준어 정도만 지켜 내려고 하는 방어적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서 더 공세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교양층을 형성하고, 문화적 열등감을 벗어나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고, 그것을 언어생활 차원에서 교육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죠.

차익종: 그런 마음에서 선생님께서 요즘 힘을 기울이시는 일이 있나요?

남기심: 《연세 한국어 사전》을 더 크게 편찬하는 일을 거두고 있지요. 사전은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문장과 작가가 배출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수한 연구 역량이 힘을 다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차익종: 《새국어생활》 독자들에게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남기심: “우리 이제는 말 좀 잘해 보자, 정확하게 하자.”며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국어학자나 교육자들에게도 다시 당부하고 싶네요. “문법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앞으로는 소통 중심으로 바꾸자.”고 말이지요.

차익종: 오랫동안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